

정산, 최비의 쉼다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6월)

2024년 6월 보르네오섬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쿠칭에서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귀한 동역자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지난 3개월을 돌아봅니다.

▷ 정산, 최비 선교사의 사역은..

● 화교 교회사역

* 설교사역 - 쿠칭 화교 교회와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만지심과 변화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 화교교회 알파코스 사역

4월부터 알파코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주위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총 열다섯번의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코스입니다.

특pecially 이번에는 Youth 6명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Youth 모임 담당이기에 매주 소그룹을 인도하며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의 모임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친구 6명 가운데 현재 3명만이 남은 상태이지만 이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기대합니다.

정산, 최비의 원다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6월)

● 화교 Youth 리더 제자훈련



4월부터 리더 5명의 자매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작년에 제자훈련을 했던 자매 2명이 저에게 올해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에 작년보다 올해의 제자훈련은 더욱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5명의 자매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5명의 자매는 매일 묵상한 말씀을 글로 써서 그룹 메신저에 올립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묵상의 말씀입니다. 또한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개인 기도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훈련시간에 나누는 개인의 영성 나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나눔만 이뤄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 영성 나눔 시간에 자매들의 눈물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6월 둘째주에 끝이 나지만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매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중고청년부 단합회 및 연합모임

4월 10일에는 중국어 Youth 친구들을 데리고 쿠칭 근처의 산으로 단합회를 다녀 왔습니다. 1시간 정도 산에 오르는 코스인데 이날 비가 많이 와서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상에 오르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 Youth 연합모임을 가졌습니다. 3개의 언어



정산, 최비의 쉼다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6월)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로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연합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연합 모임은 7월 14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은 한국의 창원 ***교회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날 연합모임은 한국 교회 대학생들이 찬양인도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인솔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선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주시길 기대합니다.

● 화교형제와 이반족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다



4월 25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원래 사무엘(오른쪽/화교)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는데 그곳에 마침 조나단(왼쪽/이반족)형제도 같이 있어서 중국어와 말레이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제랄드(가운데/화교)형제가 중간에 말레이어로 통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명의 형제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천국에 대한 확신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쁨입니다. 앞으로 복음 전할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 지길 기대합니다.

● 최비선교사 한국어 교실

최비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20명이 넘었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곡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6월 말에 첫 단계의 과정을 마치면 방학을 하고 9월 이후 다시 다



정산, 최비의 쉼다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6월)

음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한국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

스부야우 이반족 사역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찬양팀 친구들도 이전보다 조금씩 실력이 늘고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레이어 설교는 아직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반족 형제 자매들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에녹, 에텐은

에녹인 학교 중간고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와 동행해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믿고 맡깁니다.

에텐이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텐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에텐이는 7월초 방학을 하면 말레이시아로 잠시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에 추억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사역은

*창원 ***교회 단기비전트립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창원 ***교회의 대학생 11명(인솔 목사님 포함)이 이곳에 단기비전트립으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대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쿠칭 화교교회 성도 한국 교회 탐방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쿠칭의 따부안자야 교회 성도 18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18명은 두 명의 현지 목사님과 화교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했고 구체적인 일정을 짜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국방문의 주요 목적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선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정산, 최비의 쉼다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6월)



기도를 배우는 것 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18명의 형제 자매들이 은혜 받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서신을 통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두 손 모아 주세요.

1. 쿠칭 화교 교회 사역(설교, Youth모임인도, 찬양팀, 금요기도회, 성경공부반, 한국어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시골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섬기는 설교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 정산, 최비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레이어 습득을 더 잘하게 하소서.
4. 창원 ***교회의 단기선교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10월 말에 있는 화교 교회 성도들의 한국 방문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하소서.
5. 에녹과 에덴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카톡 아이디 jungsan91china

한국 핸드폰 번호 010-4386-7531(한국 귀국 시 사용)

070 인터넷 전화 070-4544-6959

말레이시아 쿠칭 전화 국가번호(60) 11-5138-7531

이메일 주소 andrew1976@naver.com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쿠칭에서 정산, 최비